SLOW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주소 : 제주시 노형8길3 우학빌딩 5~7층 문의 : 064-900-2600 심의필 : 제 180227-중-03863호

참간 30주년 since 1989

한라일보

P 공항가는길 주차장 무료셔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세차무료(외부) 주차비저렴
Tel. 744-1199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

漢拏日報 제8900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음력 6월 9일)

‘스마트 국제자유도시’… 공은 정부로

道,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서 ‘발전방향안’ 제시
제2공항·신항만 등 포함… 정부 수용 여부 ‘주목’
관계부처·전문가 자문 후 11월 대통령 승인 목표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담길 제주 발전방향안이 제시됐다. 정부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2시 K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호남제주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주연구원 엄상근 박사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향안’을 발표했으며, 제주지역 토론 선정자로 이동욱 제주대 교수가 참석했다.

제주도 발전방향안에는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제주도민 삶의 질·안전 향상 추구 ▷분권과 균형의 특별자치도 실현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혁신·스마트·평화 가치가 반영된 국제자유도시 등 4가지 기본목표를 담고 있다.

전략목표는 ▷삶·안전 제주 ▷균형·혁신 제주 ▷청정·스마트 제주 ▷평화·분권 제주 등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개발 수요의 감소 ▷인프라 노후화 ▷원도심 쇠퇴 심화 ▷취약인구 증가 ▷서비스 산업화 심화 ▷관광산업확장 요구 증대 ▷1·2·3차 산업의 융합형 산업 정책 중요성 증가 등의 제주지역 여건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기상이변·수온상승 등의 환경변화 대응과 ▷스마트 시스템 확산 ▷공유자원에 대한 관리 및 지역내 환원 요구 증가 ▷고도의 자치권 요구 증가 등의 기술·사회·정치변화도 영향을 끼쳤다.

세부과제를 보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 추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공항 간 도로 및 공항~서귀포 간 연결도로 계획 반영 ▷장기적으로 신교통수단 도입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의 경우 동해안벨트(제주-부산-강원-원산-천진) 및 서해안벨트(제주-인천-남포-신의주)와 연계한 한반도 해상물류체계에서 제주도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여객운송 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공공주택 1만호 공급 ▷혁신도시와 연계한 국제 MICE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귀포 도심과 서귀포 혁신도시, 중문관광단지 간 연결 인프라 구축 ▷제주신항만·서귀포항 거점의 원도심 재생 ▷블록체인·전기차 특구 조성 ▷웰니스 관광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동북아환경수로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계획안을 오는 10월까지 중앙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11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고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 승인을 받고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핵심 목표는 ▷포용적인 국토 ▷활력있는 국토 ▷품격있는 국토 ▷상생하는 국토 등이며, 발전전략은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국토 만들기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국토 만들기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매력국토 만들기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만들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국토 만들기 등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서 지하수 관련 국내 최대 행사

11~12일 제주컨벤션센터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19’

통합 물 관리에 발맞춰 지하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활용과 보전을 위한 국내 최대 행사가 제주에서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지하수 최대 행사인 ‘그라운드워터 코리아(Groundwater Korea) 2019’를 11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고, K-water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하수 유관부서, 지자체, 학계, 업계, 해외 지하수 전문가(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19’는 ‘통합 물 관리, 새롭게 도약하는 지하수’라는 주제로, 국내·외 지하수 정책 및 제도와 지하수 보전·관리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과 체계적인 보전·관리 등을 모색한다. 또 기업 홍보관 운영 및 지하수 관련 장비전시 등을 통해 지하수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제주 지하수인 담지하수(삼다수) 및 염지하수(용암해수)에 대한 우수성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물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하수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오늘까지 장맛비

13~17일 다시 장마전선 영향

제주에 한바탕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11일까지 최대 4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록된 제주지역 강수량은 제주 31.6㎜, 산천단 43㎜, 서귀포 29㎜, 성산 17.7㎜, 송당 56.5㎜, 고산 6.6㎜, 성판악 96㎜ 등이다.

기상청은 “비는 11일 새벽까지 내리다 그치겠다. 다만 산지와 북서부 중산간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겠다”며 “12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고 설명했다.

장마전선은 11일 이후 동중국해와 일본 사이로 남하하겠지만, 13일부터 17일 사이에 다시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제주도 산지와 북부, 동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1일 오전까지 바람이 10~14㎧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강한 비바람을 뚫고… 강한 바람과 함께 장맛비가 쏟아진 10일 제주시 도두동 해안을 찾은 도민·관광객들이 우산을 쓴채 비바람을 뚫고 힘겹게 걸어 가고 있다. 장마전선은 11일 오후 들면서 남하하겠지만, 13~17일 사이 다시 제주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만기자

제주 청년들의 사회경제 실태는?

道, 만 19~39세 청년 1500명 대상 면담 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019 제주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제주 청년들의 주거·건강·일자리·삶의 질 등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도는 첫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 주기로 도내 청년들의 사회적 상태 및 인식 변화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 도내 거주 청년 중 추출한 표본 1500명이다. 조사방식은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담 형태로 이뤄진다.

조사항목은 개인, 주거, 가족, 건강, 문화여가, 삶의 질, 노동, 희망일자리, 지역특성 9개 분야·4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 자료 검증 및 통계적 분석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타
블랙박스 점검센타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기획 / 2019 조미영의 제주마을탐방 <1>제주시 광령2리… 7면